

01

Vol.70
January, 2022

2022년, 고용노동부 정책 변화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1.6조원, 전년 대비 36% 확대 편성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60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



HRD 1월의 이슈

2022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



신기술 분야 추가 발굴,
4대 부문 20개 분야로
확대 양성



재직자·신규자 교육 통해
스마트 제조인력,
10만 명 양성 지속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만 18~34세 청년 대상





2022 달라지는 HRD

•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시작되었다.

디지털·비대면 등 일자리 환경이 변화하고,

더 나은 HRD 환경이 요구되는 시점.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신기술 교육을 위해

올 한 해 달라지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짚어본다.

통권 제70호

발행일 2022년 1월 15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센터
052-714-8347

구독신청 및 문의 shinik1224@hrdkorea.or.kr



COVER STORY

HRD 1월호 표지는
2022 새롭게 문을 여는
HRD 동향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향해 나아갑니다.

CONTENTS

HRD 스페셜

- 04 2022년에 고용노동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 06 '22년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1.6조원, 전년 대비 36% 확대 편성
- 0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08 2022년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60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
- 09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일자리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발표

HRD 현장

- 10 '21년 10월·11월·12월 이달의 한국인 선정
- 12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으로 청년 융합 인재 양성 추진
- 1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 빅데이터 알고리즘 및 시각화 경진대회 개최
- 15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훈련기관 코로나19 방역점검
- 16 "빅데이터 활용 고용서비스 혁신"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 17 청년정책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고용 BRIEF

- 18 2021년 11월 고용동향

연구 INSIDE

- 20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
- 20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
- 21 진로교육 및 체험의 노동시장 성과
- 21 직업 고용 전망 연구-국내외 전망 사례를 중심으로

기관 LINK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본 소식지는 사람과 환경에 해가 적은 공기를 인쇄방식으로 제작합니다. 또한 인체에 해로운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한 재생 펄프용지를 사용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센터는 2050 탄소중립에 함께합니다.

2022년에 고용노동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면
2022년에 고용노동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 ▶ 주요내용
 - ◇ 2022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9,160원
 - ◇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주요내용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 주요내용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규모 10만 명 확대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 주요내용 : 20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 ▶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 ▶ 추진배경
 - ◇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일자리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평생 고용준비를 위한 경력진단 및 설계 필요
 - ◇ 대기업의 경우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 제공이 의무화(’20.5월) 됐으나, 중소기업은 제외되어 사각지대 존재
- ▶ 주요내용
 - ◇ (지원대상) 만 45세~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22년 5,000명)
 - ◇ (지원방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 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 원 추가 지원
 - ◇ (지원내용) 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심층적인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 지원
 - 경력설계 컨설턴트, 심리상담사, 해당 업종의 현직자·인사담당자 등이 1:도로 밀착하여 경력진단·설계의 협진 시스템 제공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 시행일 : 2022년 1월 중
- ▶ 주요내용
 - ◇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
 -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80만 원, 최대 960만 원(최대 12개월)
 - ◇ (지원한도)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 (지원요건)
 -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 ◇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개요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 주요내용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 ▶ 지원대상 및 수준
 -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
 - ◇ (지원수준) :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K-Digital Training의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 ▶ 시행일 : 2021년 8~10월 훈련과정 선정, '21년 말부터 훈련과정 본격 개설
- ▶ 추진배경 :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6.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SW인력난 대응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주도형 인재양성 추진
- ▶ 주요내용
 - ◇ K-Digital Training 내, 민간 협·단체,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주도하는 새로운 훈련유형을 신설, 추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 추진배경 : 주52시간제, 디지털전환 등에 따라 비대면 훈련, 짧은 시간 맞춤형 훈련방식(마이크로러닝)을 선호하는 기업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현장 의견 반영
- ▶ 주요내용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 시간' 요건 완화
 - ◇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훈련기간 및 시간' 요건 일원화
 - ◇ 훈련기간 요건은 폐지하고 최소 훈련시간은 8 ➡ 4시간으로 완화

'22년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1.6조 원, 전년 대비 36% 확대 편성



2021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면 '22년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1.6조 원, 전년 대비 36% 확대 편성'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협업예산 편성 신기술 분야

부문	협업예산 편성 취지	세부 기술 분야
디지털	빠른 성장 속도 대응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메타버스, 5G-6G, 일반SW (블록체인 포함), 사이버보안
산업 기술	산업계 요구 고	이차전지, 3D프린팅, 첨단 소재, 시스템반도체, 지능형 로봇+항공드론, 차세대디스플레이
환경·바이오	저탄소·팬데믹 대응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미래원천 기술	선제적 대비 필요	수소, 양자, 우주

* 협업예산이란?

◇ 수요자 맞춤형 예산 편성,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관계부처가 예산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제도

⇒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은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을 기초로 인력 부족 분야 중심의 집중 투자 등 일관된 방향을 담아 관계부처가 인력양성예산을 묶음으로 편성

정부는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20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22년 1.6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16만 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력양성정책을 인력수급전망에 기반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1년부터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2년에는 편성 2년차를 맞아 1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140개 인력양성사업을 담아 '21년보다 확대 편성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약 1.6조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1 4대 부문 20개 분야로 인력 양성 분야 확대

'22년 협업예산은 산업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메타버스·신재생에너지·미래원천기술 등 주요 신기술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21년 6개 분야에서 4대 부문 20개 신기술 분야로 양성 분야를 크게 확대해 폭넓은 분야에서 신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2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

현장에서의 인력이 부족한 부문별로는 디지털, 수준별로는 중·고급 인력양성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체 예산의 68.2%를 디지털 부문에 편성하고, 중·고급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하는 등 부족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인력 부족 분야는 각 부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부족 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였다.

3 산업·지역 등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

또한, 신기술 인력에 대한 산업·지역 등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현장 적합도가 높은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훈련 과정을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역의 신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였다.

4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간 연계 강화

아울러, 정부는 부처 협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범부처 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국민이 범부처 사업에 단계별로 참여하여 역량을 상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초·중·고급 수준 사업간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트랙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디지털·바이오 등 신기술이 세계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 성패는 신기술 인력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부처의 힘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며, 그 기반이 바로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이라고 강조하고, “편성된 '22년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등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12월 9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9일,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시행 : 공포한 날부터)

<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이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지속 이행하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2> 청년고용촉진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 청년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한시 규정 삭제

’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입법 이후 한시법으로 운영되어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2023년 만료되기 전에 한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영구법으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1년)

<1> 직업훈련 현장 지도·감독 거부 시 행정제재 강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고·자료제출 명령 등 서면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외 훈련기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는 등 현장 지도·감독에 불응 시 과태료 외 제재를 부과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했다.

<2>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훈련 교·강사에 대한 강의 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훈련 교·강사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직업훈련 과정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훈련 교사가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강사로서 강의는 가능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

<3> 직업훈련 관련 부정수급 관리 강화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용자·수강 제한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추가징수액 한도도 부정수급 주체에 관계없이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상향된다. 아울러,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22년 '고속련 일학습 병행(P-TECH)' 60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



2021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면 2022년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 60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TECH (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직업계고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신기술 중심의 고속련 기술융합형 훈련과정(2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국가자격과 전문학사 취득을 돕는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 운영 대학 11개교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 운영 대학은 현행 49개교에서 2022년에는 60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된다.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은 직업계고 학생이 「고교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을 마친 뒤 취업을 이어가면서 전문대학 등에서 일학습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학위(전문학사)와 함께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을 돕는 대표적인 직업계고 후학습(後學習)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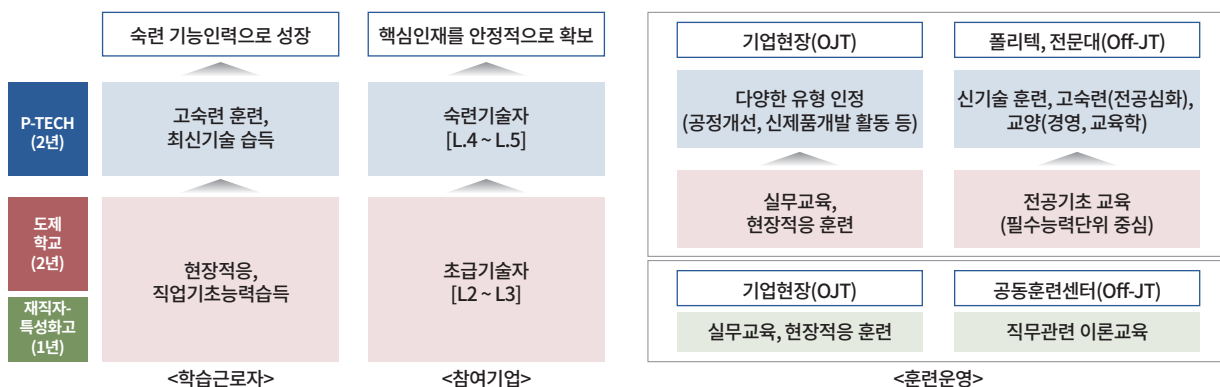
특히,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실무 융합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여 교육과정도 30% 이상을 신기술 분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선정된 11개 대학은 기계·전자 분야 등의 신기술 융합 훈련이 가능한 대학 위주로 선정됐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4개교)을 비롯해 경상권(3개교), 충청권(2개교), 강원권·전라권(각 1개교) 대학이 추가 선정되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됐다. 이로써 2022년에는 60개 대학 93개 학과에서 약 3,300여 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근로자는 신기술 습득과 전문학사 취득이 가능하고 기업은 재직 중인 근로자를 기업의 핵심인재로 육성함으로써 장기고용이 가능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고교 일학습병행 이수자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졸업생까지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전공 분야의 신기술 직무능력 향상과 경력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기술인력으로 더 성장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사편입 과정 등 다양한 후학습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 운영 모형



<P-TECH 주요특징>

1. [분야] 고교전공과 밀접히 연계된 고속련훈련과정
2. [운영] 현장과 밀착된 다양한 OJT 운영
3. [내용] 유망 신기술, 기초교양 강화 등 교육내용 차별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일자리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발표



2021년 1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한 일자리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발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제조 플랫폼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 ①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수집 ➡ ②주요 공정별 인공지능(AI) 데이터셋(Data Set, 표준모델) 구축 ➡ ③현장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

*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이 데이터 주권과 자결권 확보를 위해 착수한 프로젝트로, 데이터 상호연계에 필요한 규칙과 기술 기반(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2월 22일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일자리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그간 글로벌경제의 디지털전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1년까지 2.5만여개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보급했으며,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제조를 위한 ‘데이터 제조 플랫폼(KAMP)*’을 구축했다.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 제조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등은 생산성, 매출액 등 기업 경쟁력도 대폭 높였으며, 이는 일자리 질 향상에도 기여해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평균 2.6명의 고용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6.2% 감소했다. 또한, 케이(K)-방역 제품의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형 공장 지원과 탄소중립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 등 시급한 사회 문제의 해소와 완화에도 기여했으며, 작업환경 개선으로 청년과 여성의 채용의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등 일자리 질도 높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제조기반(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치사슬을 고려한 협력지구(클러스터) 단위 지원, 선도모델 확대 등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25, 100개), ‘케이(K)-등대공장’ 구축(~’25, 100개), ‘탄소 중립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등 고도화 모델을 적극 확산하고, 기업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신설하고 캠프(KAMP) 내 해결책(솔루션) 가게(스토어)를 구축해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고도화와 법 제정 등을 통해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제조 실현을 추진한다. 제조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를 촉진하도록 인공지능 표준모델 50종을 구축(~’24)하고,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제조데이터 공유 국제규범으로 추진 중인 ‘가이아엑스(GAIA-X)*’ 참여를 확대하고, ‘스마트제조혁신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전문 운영인력을 양성하고, 일터 혁신을 가속화 한다. 재직자·신규자 교육을 통해 스마트 제조인력 10만 명 양성을 지속(~’22)하고, 인공지능(AI) 융합인재와 공급기업 전문인력 3천여명(~’25)을 육성한다. 인공지능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관리를 위해서는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사업’을 신설해, 데이터 관리 및 현장 문제 해결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관리와 일터혁신(고용부)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스마트기술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소 제조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번 안건에 포함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1년 10월·11월·12월 이달의 한국인 선정



2021년 12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면

'21년 10월·11월·12월 이달의 한국인 선정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
(주)와치캠
최지훈 대표

11월
-
(주)21세기
김성한 대표

12월
-
(주)에스제이뱅크
최인호 대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CCTV 카메라 제조 및 정보통신 전문가 최지훈 대표((주)와치캠) 등 3명을 올해 10~12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12월 13일 세종청사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1년 12월 기준 178명 선정)하고 있다.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이 대상이다.

10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주)와치캠 최지훈 대표는 CCTV 카메라 및 CCTV 카메라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에서 정보통신을 공부한 최 대표는 CCTV 카메라 제조업체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CCTV 카메라 제조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섭렵했다.

2010년 와치캠을 창업한 후 1년 만에 아날로그 방식이 전부였던 국내 CCTV 카메라 업계를 제치고 국내 최초로 디지털 방식의 CCTV를 선보였다. 경쟁사들이 27만·41만·51만 화소 제품들을 판매할 때 210만 화소 제품을 출시한 것이다.

2014년에는 국내 최초로 UHD(Ultra High Definition, 초고선명) 4K 카메라를 출시했고, 산업용 블랙박스를 개발해 미국 등 해외로 수출했으며 2015년에는 CCTV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연동하는 시스템 구축과 직접 설비를 구축하는 공사업으로도 진출했다.

2017년부터는 사내에 교육장을 만들어 '정보통신마이스터교육'을 통해 공사업으로 진출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1,200여 개 업체, 1,700여 명에게 재능기부를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와 500여 편 이상의 동영상 제작해 유튜브 채널로 공유하고 있다. 최 대표는 "기능한국인으로서 선정돼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라며 "그동안 터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선배들과 공유하고 발전시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전했다.

1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주)21세기 김성한 대표는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자로, 자동차와 전기, 전자 생산라인에 필요한 공구를 개발한 전문가다. 직업계고등학교 제도와 졸업 후 드릴 등 특수 공구를 설계·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해 공구 설계 전문가인 사장으로부터 설계와 개발업무를 배운 김대표는 수입품 일색이었던 자동차부품 생산라인용 공구 400~500개를 직접 개발해 공구를 국산화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후 창업해 자동차분야에서 전기와 전자분야로 넓혀 공구를 만들던 김 대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 구멍을 뚫어줄 수 있냐'라는 의뢰를 받고 레이저장비를 활용해 국내에서는 불가능으로 여겼던 가공기술을 개발해 초정밀 레이저 가공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며 선구자 역할을 했다.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가공기술을 연마한 김대표는 2019년, ELID(Electrolytic In-process Dressing) 연삭 가공기술에 펄토초(1천조



분의 1초) 레이저 가공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초로 초정밀 절단용 블레이드(Blade, 원형 또는 직선형 칼날)를 개발했다.

김 대표가 개발한 블레이드는 LCD패널과 OLED 마이크로 필름, MLCC(적층 세라믹 콘덴서), 2차 전지 박막 커팅 등 초소형 및 난삭재 전자부품 생산에 활용되며,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LED, 현대캐피코 등 국내 대기업과 도시바, 온세미콘, 마이크론, 히타치 등 다국적기업에 수출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해마다 매출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기술력을 향상시킨 결과, 기능한국인의 영예를 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 전 가공 공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초정밀 레이저 가공기술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 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12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주)에스제이뽕오르방 최인호 대표는 2005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월드페이스트리컵 초콜릿공예 부문에 출전해, 역대 국내 최고 성적으로 입상한 제과제빵기술 전문가다. 최 대표는 1989년 한국제과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제과·제빵 기술을 익힌 다음 국내로 돌아와, 1999년 첫 번째 제과점을 열었다.

최 대표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마늘과 도라지 등 우리의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로 빵을 제조하는 데 있다. 참기름으로 볶아 마늘의 매운맛을 없애고 도라지, 연근, 상황버섯 등이 가진 특유의 향을 없애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다 잡았다. 현재 마늘 성분이 들어간 빵 제조방법 등 7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용인과 광교 등지에서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의 제과점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카페와 쿠키클래스, 전시공간이 결합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최 대표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 및 세미나 개최, 재소자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제과·제빵교육 등 재능 나눔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뽕오르방 최인호의 빵 이야기’, ‘뽕오르방 최인호의 잼 이야기’ 등 3권의 책을 출간해 직업계고 등에 기부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원재료와 제조방법, 판매에 이르기까지 진정성을 담은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라고 전하면서 “기능한국인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작은 빵집에서 시작한 초심을 잊지 않고 진정성과 나눔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기술과 실력으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한 분들이며, 또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과 우리 사회에 나누는 데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기능한국인을 적극 발굴해 격려하는 한편, 이분들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한국산업 인력공단,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으로 청년 융합 인재 양성 추진



2021년 12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면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으로 청년 융합 인재
양성 추진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이 추진 중인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이 청년층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하여 주목 받고 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은 2020년에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자동차, 뿌리산업, 관광·레저 등 9개의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 문제에 집중해서 대응하기 위해 만 18~34세 청년을 주요 훈련 대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 사업은 개별 훈련기관이 보유한 기반시설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산업별 협회·단체가 실무 현장의 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 훈련센터와 협업하여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지원 및 입직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과정 운영, 채용 연계 등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직업방송 ‘현장 잡(Job)치기’ 홍보 사례



- ▶ (주요 내용)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전반, 자동차 사업단 우수사례 홍보
- ▶ (방영일) 12.9.(목), 12.16.(목) 2회 방영
- ▶ (방송 내용) 직업훈련 선순환 체계 홍보
 - 청년 훈련생이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에 지원, 교육 수료 후 취업 성공
 - 취업 이후 신규 직원으로서 기술 역량 향상을 위한 재직자 훈련에 재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해 소개
 - 훈련생, 강사, 협약기업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훈련에 대한 만족도 확인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현황

연번	산업 분야	산업별 협회·단체명	산업형 공동훈련센터명
1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자동차ISC)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	뿌리산업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뿌리ISC)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협회
3	정보기술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훈련원
4	관광·레저	한국MICE협회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5	스마트공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계ISC)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6	스마트제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아주대학교
7	디자인·문화 콘텐츠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ISC)	홍익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8	정보통신	벤처기업협회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9	정보기술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한국IT교육재단

이에 따라,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올해는 작년보다 훈련생이 4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청년 참여 비중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이 사업 도입 단계부터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한 만큼, 각 사업단에서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기술 분야 사업단에서 청년 훈련생이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기업에 채용되도록 기업과 약정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실무형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취업률 100%’를 달성한 사례도 있으며, 뿌리산업 분야 사업단에서는 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진로 상담뿐 아니라 전문가 심리상담까지 제공하고 있다.

한 사업단 관계자는 “전체 훈련과정의 50% 이상이 청년에 특화된 채용예정자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다른 사업보다 구직자 참여 비율이 월등히 높다.”라면서, “재직자 훈련보다 훈련기간도 길고 관리상 어려움도 따르지만, 훈련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는 청년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는 채용예정자 과정 참여자 중 청년층 비율이 96%에 달할 정도로 청년의 훈련 참여 수요가 높은 가운데, 다양한 우수 사례가 발굴되기도 했다.

먼저, 청년 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무 분야가 다른 복수의 사업단이 훈련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는 ‘융·복합 과정’을 도입했는데, 정보기술·관광·레저 분야 사업단이 협업하여 마이스(MICE) 행사 기획 프로젝트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실무 훈련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훈련생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또한 자동차 분야 사업단에서는 채용예정자 훈련 이후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입직자 역량 제고를 위한 재직자 훈련에 재참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정립하여, 해당 훈련과정에 참여한 청년 훈련생의 사례가 한국직업방송TV ‘현장 잡(Job)치기’ 프로그램을 통해 2주간 방영되기도 했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을 청년 융합 인재 배출 등 훈련의 질적 성과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내실 있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얼어붙은 청년 고용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만큼, 본 사업이 청년들에게 취업으로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단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훈련을 위해 9개 사업단에 총 103개 과정이 사전 승인됐으며, 연간 2,700여 명 이상이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 및 기업 담당자는 통합 누리집(www.i-hrd.or.kr)을 통해 참여 조건 및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 빅데이터 알고리즘 및 시각화 경진대회 개최



2021년 12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 빅데이터 알고리즘 및 시각화 경진대회 개최 보도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잡케어

- ◇ 취업을 준비하는 개인에게 인공지능 기술로 직무역량을 분석하여 훈련, 자격, 일자리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

* KNOW : 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

- ◇ 청소년과 성인들의 진로 및 경력 설계, 진로 상담, 구인·구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의 대표적 직업(2020년 6월 기준 800여개 직업)의 상세한 정보(업무수행능력 및 가치관, 지식 및 성격, 업무환경 및 흥미 등)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고용노동 빅데이터 알고리즘 및 시각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고용노동 빅데이터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인공지능 기반 고용서비스를 발굴하고, 고용노동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된다. 경진대회는 <잡케어* 추천 알고리즘 경진대회>, <KNOW 기반 직업 추천 알고리즘 경진대회>, <구직자를 위한 기업 트렌드 시각화 경진대회> 3가지 주제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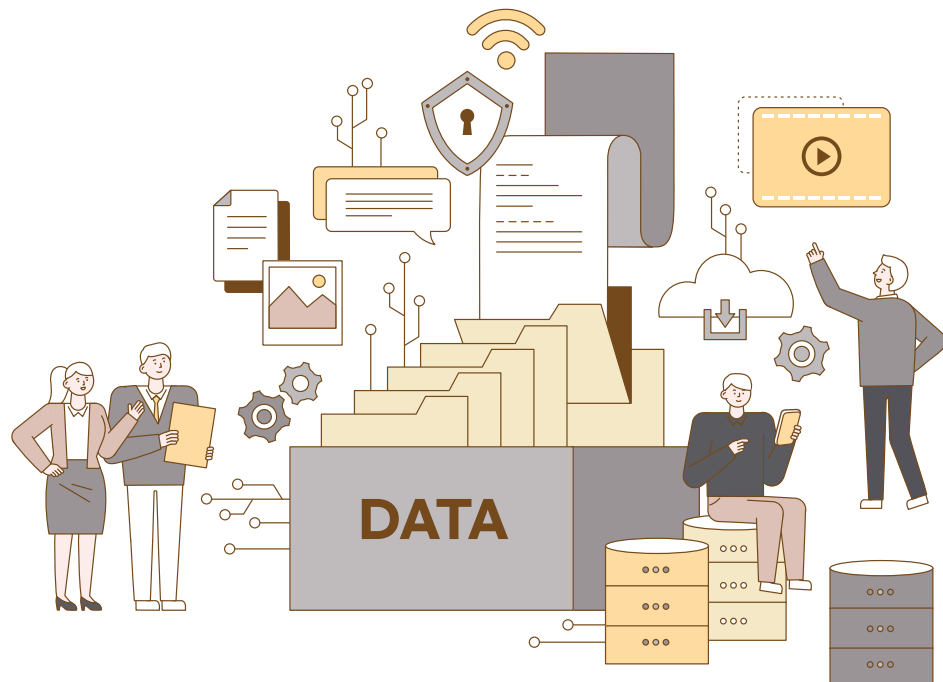
<잡케어 추천 알고리즘 경진대회> 참가자는 고용노동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콘텐츠를 추천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KNOW 기반 직업 추천 알고리즘 경진대회> 참가자는 KNOW*(한국직업정보) 데이터 기반으로 관련 직업을 추천하는 모델을 만들고, 해당 직업과 관련성이 높은 직무능력을 탐색·발굴해야 한다.

<구직자를 위한 기업 트렌드 시각화 경진대회> 참가자는 구직자가 알고 싶어 하는 기업 동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

경진대회 참가 접수는 데이콘 홈페이지(dacon.io)에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기간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8일이다. 최종 수상자는 1차 계량 평가와 2차 비계량 평가를 거쳐 주제별로 각 4명(최우수상 1명·우수상 1명·장려상 2명), 총 12명이 선정된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최우수상), 300만 원(우수상), 100만 원(장려상)의 상금과 함께 기관 명의의 상장이 수여된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고용노동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노동시장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훈련기관 코로나19 방역점검



2021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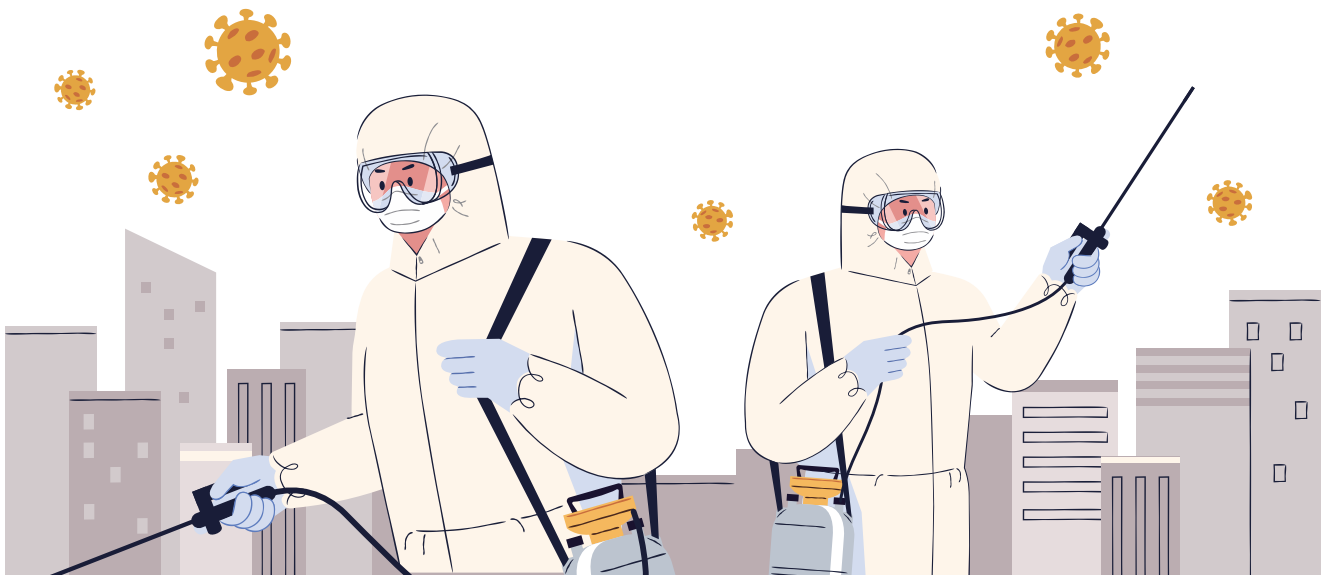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훈련기관 코로나19 방역점검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집체훈련과정의 원격 방식으로 대체 운영을 유연하게 허용하여 규제 완화,
- ② 훈련기관에 원격훈련 운영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LMS 임대지원' 사업운영), 원격훈련 콘텐츠를 활용 인프라 구축(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 등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12월 7일 동양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 현장을 점검하고, 훈련기관 관계자 및 훈련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변이 발생 및 확진자 급증 등 엄중한 방역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장·차관 및 실·국장들이 직접 소관 시설을 점검하는 '특별방역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아울러, 디지털·저탄소로의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요 지원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기관의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행됐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평생에 걸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자 2020년에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고, 2021년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여 직업훈련의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훈련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15%p)을 경감하고, 훈련장려금을 인상(11.6 → 30만 원)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에 힘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는 2020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81만 명이 발급받고, 약 154만 명이 그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주요 직업능력개발 제도로 정착하였다. 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이전 2년간(2018~2019년) 카드발급자 및 훈련참여자 수보다 각각 35.8%, 7.3%가 증가한 것으로, 2022년에는 예산 확대와 대학교 3학년 등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직업훈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훈련기관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비대면 훈련의 확산 등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국민이 평생 직업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훈련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활용 고용서비스 혁신”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2021년 12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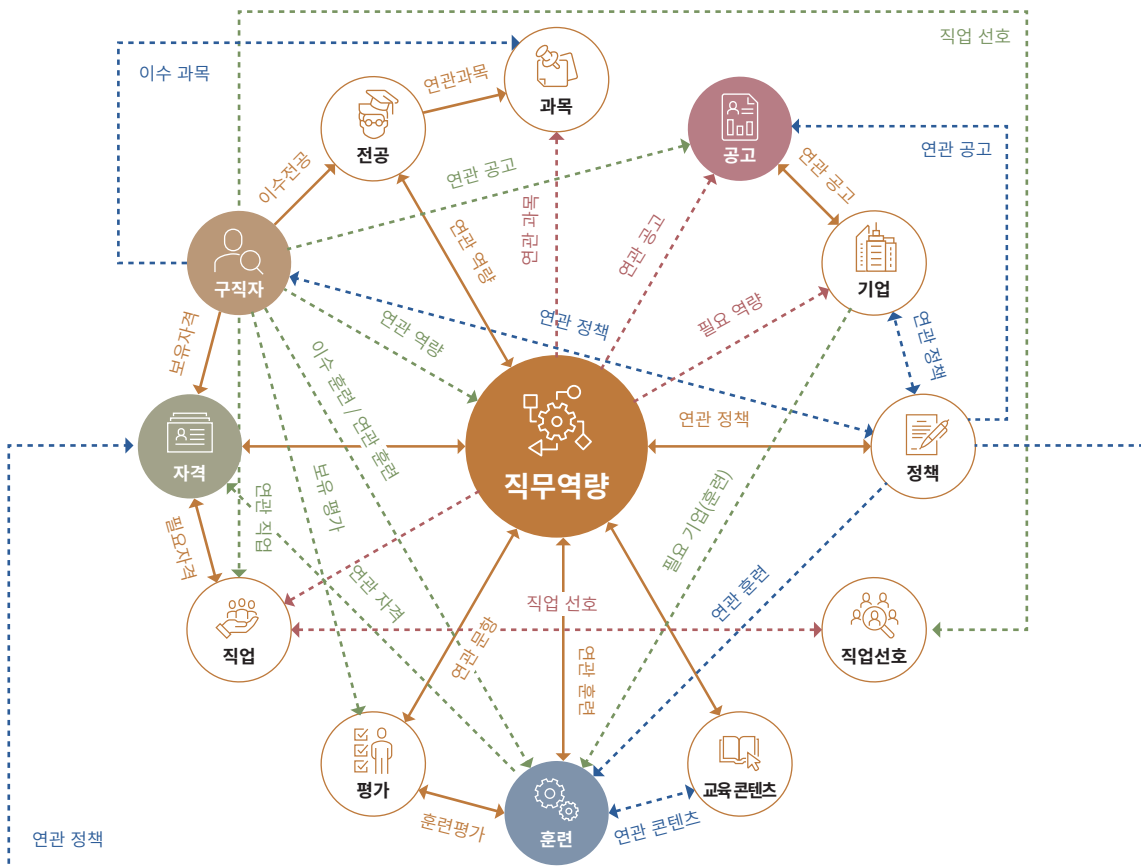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빅데이터 활용 고용서비스 혁신”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양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의 연계·공유·활용을 강화하여 고용서비스 업무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능형 직업상담서비스(잡케어) 고도화, 인적자원개발(HRD) 빅데이터 구축 방안 협력 등을 위해 추진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8년 12월 고용노동 빅데이터인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마스터 DB를 구축하였으며, 2021년 9월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직업상담을 하는 ‘잡케어’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양 기관은 지능형 직업상담서비스(잡케어) 고도화를 위해 직무온톨로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전문가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직자들에게 보다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 직무온톨로지 구조도



청년정책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021년 12월 9일, 한국고용정보원



QR코드를 스캔하면 청년정책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 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 모색과 해소 사례 공유를 위한 장이 열린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8일 13시 30분 서울 강남구 신라스테이 호텔 대회 의실에서 '2021 청년정책 포럼'을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에서는 그간의 청년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고용노동부, 서울시 청년허브와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청년정책 사각지대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세 편의 연구 결과와 세 가지 해소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정책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1 청년정책 포럼 1부

1부에서는 '청년정책 사각지대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청년정책허브센터의 핵심 연구 결과들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 ▲중소기업 청년고용정책 실태 및 시사점 ▲취업취약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유럽연합(EU) 사례와 시사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재현 박사는 청년 니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규모와 청년고용정책 지원 규모를 추정 한 결과를 제시하고 청년 고용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김태환 박사는 중소기업 청년고용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인식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실태를 제시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논의한다.

정연순 박사는 청년과 사회적 포용에 관한 유럽연합 사례를 중심으로 취약청년 발굴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확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년층 매핑(Mapping)과 추적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의 취업 취약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사례를 공유한다.

2021 청년정책 포럼 2부

2부는 청년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례 ▲은둔청년 피어서포터즈 활동 사례 ▲취약 청년층 찾아가는 상담 사례로 꾸려진다.

박창언 센터장(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은 인천청년센터 유유기지에서 진행 되고 있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청년발굴과 청년센터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유승규 매니저(K2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은둔 청년 당사자(과거 은둔 경험을 가진)가 당사자를 돕는 은둔청년 피어서포터즈 활동 사례를 발표한다. 사각지대 청년을 발굴 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효과적 지원 방식에 대한 시사점이 제시된다.

한국고용정보원 김효중 대리(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는 보호종료 청년, 취약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상담 사례를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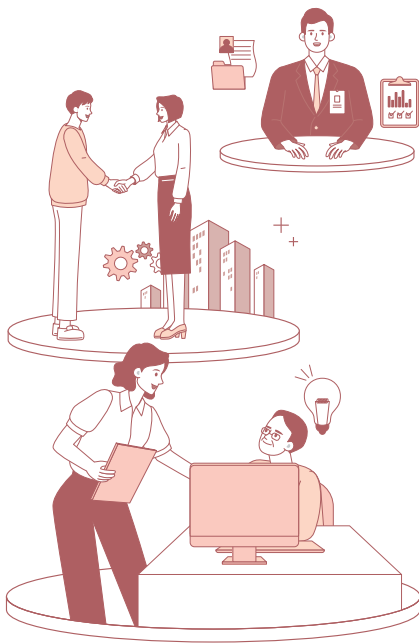
2021년 11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1



QR코드를 스캔하면
2021년 11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결과

- 11월 고용시장은 그간의 뚜렷한 회복세가 이어지며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에 거의 근접
- 정부는 그간의 양적·질적 회복세가 지속되어 '완전한 고용 회복'이 조속히 달성되도록 정책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음

취업자 및 실업자

11월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55.3만 명 늘어나며 8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

*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4)65.2 (5)61.9 (6)58.2 (7)54.2 (8)51.8 (9)67.1 (10)65.2 (11)55.3

▶ 전년 대비 취업자수는 +3.1만 명 증가하여 10개월 연속 증가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 명) : ('21.5)10.1 (6)1.8 (7)2.0 (8)4.8 (9)5.5 (10)1.8 (11)3.1

▶ 고용률·경향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 개선

*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21.5)1.0 (6)0.9 (7)0.8 (8)0.8 (9)1.0 (10)1.0 (11)0.8

* 경향률 증감(전년비, %p) : ('21.5)0.7 (6)0.5 (7)0.3 (8)0.4 (9)0.5 (10)0.5 (11)0.3

▶ 실업자수는 감소하고 실업률 하락

* 실업자(만 명) : ('21.5)114.8 (6)109.3 (7)92.0 (8)74.4 (9)75.6 (10)78.8 (11)73.4

* 실업률(%) : ('21.5)4.0 (6)3.8 (7)3.2 (8)2.6 (9)2.7 (10)2.8 (11)2.6<전년비 △0.8%p>

제조업 고용은 4개월만에 증가 전환, 서비스업은 9개월 연속 증가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6)△1.0 (7)0.6 (8)△7.6 (9)△3.7 (10)△1.3 (11)5.1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6)44.2 (7)44.0 (8)43.6 (9)63.3 (10)59.1 (11)45.8

▶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 보건복지업 중심 +45.8만 명 증가

* 전문·과학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7)5.7 (8)5.5 (9)5.9 (10)6.4 (11)8.7

* 정보통신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7)4.6 (8)7.5 (9)9.7 (10)10.3 (11)10.6

* 운수·창고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7)12.1 (8)10.7 (9)16.3 (10)16.3 (11)14.8

* 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7)9.1 (8)4.7 (9)△0.1 (10)△3.3 (11)△8.1

* 보건복지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7)23.7 (8)24.3 (9)28.0 (10)30.0 (11)27.9

▶ 농림어업·건설업은 취업자 증가세 지속

* 농림어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7)1.2 (8)3.7 (9)2.2 (10)2.0 (11)3.1

*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7)9.2 (8)12.3 (9)5.7 (10)5.2 (11)1.6

모든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

* '21.8 → 9 → 10 → 11월 고용률(전년비, %p) : (청년)2.3 → 3.2 → 2.8 → 2.7 (30대)0.3 → 1.3 → 1.1 → 0.4 (40대)0.9 → 0.8 → 0.9 → 0.2 (50대)0.9 → 1.4 → 1.4 → 1.6 (60세 이상)0.7 → 0.3 → 0. → 0.4

※ 연령별로 인구 증감 편차가 커 취업자수보다 고용률(인구대비 취업자수)로 고용상황 평가 필요

임금 근로자(+54.3만 명), 비임금 근로자(+1.1만 명) 모두 증가

* '21.10 → 11월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 명) : (상용직)61.5 → 61.1 (임시직)21.9 → 10.6 (일용직)△16.2 → △17.5 (고용有자영업자)△2.6 → △0.4 (고용無자영업자)4.5 → 4.2 (무급)△3.7 → △2.7

일시휴직자 감소(△12.2만 명), 단시간(1~17시간) 근로자는 +9.1만 명 증가, 전일제(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49.7만 명 증가

* 일시휴직자(만 명) : ('21.6)40.3 (7)50.6 (8)62.5 (9)39.4 (10)37.5 (11)35.2
* 취업시간별(전년비, 만 명) : (1~17시간)9.1 (18~35시간)8.7 (36시간 이상)49.7

청년층 취업자수는 3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6)20.9 (7)18.4 (8)14.3 (9)21.9 (10)18.0 (11)16.8
* 청년층 인구(전년비, 만 명) : ('21.6)△13.4 (7)△13.7 (8)△14.4 (9)△14.4 (10)△14.8 (11)△15.0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확장실업률은 하락

* 청년 고용률('20.11 → '21.11, %) : 42.4 → 45.1 <+2.7%p>
* 청년 실업률('20.11 → '21.11, %) : 8.1 → 5.5 <△2.6%p>
* 청년 확장실업률('20.11 → '21.11, %) : 24.4 → 19.6 <△4.8%p>

청년 비경활인구는 취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 청년 비경활인구 증감(전년비, 만 명) : ('21.8)△21.3 (9)△22.3 (10)△22.0 (11)△21.6

평가 및 대응

세부 고용지표도 그간의 회복흐름이 보다 뚜렷해지는 모습

- ① 제조업, 민간 서비스업 일자리 등이 고용 회복을 주도
- ②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공공·준공공부문의 일자리 버팀목 역할도 지속(전체 취업자 증가의 약 36%)
- ③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
- ④ 취업시간별로는 주당 근무시간 36시간 이상 전일제 근로자 증가가 근무시간 1~17시간 근로자 증가폭을 크게 상회
- 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
- ⑥ 다만,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고용이 감소한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의 어려움 지속

정부는 그간의 양적·질적 회복세가 지속되어 '안전한 고용 회복'이 조속히 달성되도록 정책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음

- ① 최근 방역 불확실성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기 마련된 피해업종 소상공인 지원 등을 신속히 집행
- ② 그간 꾸준히 추진해온 민간일자리 유지·창출 노력도 지속
- ③ '22년 예산 반영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 ④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인력 지원 등 정책노력 지속

전국민 평생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달 체계 개편방안



QR코드를 스캔하면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달
체계 개편방안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승환, 고혜원, 최영섭, 정동열, 김윤아

주요내용

-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및 실태, 관련 국외사례를 분석
- 일반국민 및 기업체 대상 평생직업능력개발 관련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평생 크레딧’ 사업 추진방안 제안

주요목차

- 평생직업능력개발 수요 및 실태
- 개인주도 훈련 관련 해외사례
- 평생직업능력개발 수요조사 및 FGI 결과
- 평생 크레딧 사업 추진방안(안)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



QR코드를 스캔하면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
김동규, 김중진, 최영순, 신지선, 서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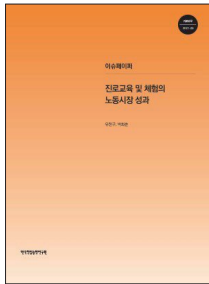
주요내용

-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 디지털 혁신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의 격변의 시대에 국민들에게 미래유망 신직업 정보를 제공
-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 개개인의 진로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향후 ‘정부 발표 신직업’을 위한 후보 직업군으로 활용될 수 있음

주요목차

- 선행 연구 : 신직업 유형, 선정 기준, 활성화 방안
- 신직업 후보군 탐색
- 미래유망 신직업 선정
- 신직업 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

진로교육 및 체험의 노동시장 성과



QR코드를 스캔하면
진로교육 및 체험의 노동
시장 성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한구, 박화춘

주요내용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OECD는 청소년기의 진로교육과 진로 및 직업체험이 NEET, 소득, 역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진로준비도(Carrer Readines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 자료를 분석하고 자아개념의 효과를 함께 검증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격차를 줄이난 방안으로 진로교육 추진방향을 제시함

주요목차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대상 및 결과
- 정책제언

직업 고용 전망 연구-국내외 전망 사례를 중심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직업 고용 전망 연구-국내
외 전망 사례를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한국고용정보원
홍현균

주요내용

- 주요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 인력수급 전망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 보고, 우리나라의 직업 고용 전망 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선방향 제시

주요목차

- 직업 고용 전망의 개념과 의의
- 국내 직업 고용 전망 사례, 통계 인프라 현황
- 주요국의 직업 고용 전망 사례
- 기술진보를 반영한 직업 고용 전망 사례



11.10~12.2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28.~1.14. 2022년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기관 공모(접수)

1.3~1.10. 2022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통합공모(접수)

12.13.~12.17. '22년도 산업계 주도
훈련 사업계획서 심사

12.17. '22년도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계획 공고

12.17. '21년 공정채용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12.17. 숙련기술인 우수활동자 및
우수사례자 시상식

12.18. K-뉴딜 사업추진 방향 모색
관련 포럼

1.4. 신기술 훈련과정 편성가이드
검토회의

1.4. 국가전문자격 출제프로세스
개선 의견수렴 간담회

~1.7. '22년도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사업계획서 접수

~1.7.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제안서 제출

1.7.~ 제126회 기술사 필기시험
출제·선정 위원 위촉

12.6.~1.28. 고용노동 빅데이터
알고리즘 및 시각화
경진대회

12.6. HRD-Net 「K-디지털 아카데미」
메뉴 신설
- 디지털 지식 없는 입문자 교육과정
다수(웹개발, 코딩, 프로그래밍 등)

12.21. 한국고용정보원-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보 공모 협약

1월 중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및
고령자 고용 인식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발표

1월 중 2020 한국직업정보(KNOW)
조사 결과 발표
- 소득 높은 상위 50개 직업,
만족도 높은 상위 50개 직업 등

1.12.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운영기관 사업 평가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 2년제학위과정 정시(12.30.~22.1.12.)
-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고교위탁과정 정시(11.1.~)

11.1~11.19. ‘도전! 폴리텍 메타버스’
미래 폴리텍 성장 플랫폼,
메타버스 콘텐츠 및
아이디어 콘테스트

11.10.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식

12.7.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12.10. ‘IT 발전과 고용서비스 미래’
토론회

12.15.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업무협약식
최고경영자과정 31기 수료식

1.17. ‘안전점검의 날’ 합동점검

1.19. 디지털 인재양성 컨퍼런스

1.20. 직업능력개발 연구 학술대회 개최

1.24. ‘스타훈련교사’ 위촉식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2.16. 직업훈련 품질관리 이슈페이프
Vol.1. 발간

12.31. BHA(베스트직업훈련기관)
혁신사례 비대면 워크숍 개최

12.31. 2022년 운영과정 통합심사/
중앙부처국기 선정 결과 발표

12.31. 2022년 스마트융합훈련 심사
결과 공고

12월중 2022년 훈련이수자평가
설명회 및 평가위원 연수 실시

12.7. 2021년 제5차 사회정책포럼
‘다문화 포용정책의 부처 연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
확산(온라인 생중계)’

12.7. 2021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최종보고회(온라인 생중계)

12.17. 대학 진로교육 활성화 세미나
(온라인 생중계)

12.22. 2021년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 사업 성과보고회
(온라인 생중계)

12.23. 2021 직업계고 학점제
성과보고회(온라인 생중계)

12.28.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공청회

12.28. 르완다 교육부 기술직업
교육위원회와 MOU 체결

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1** HRD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당신의 2022년을 응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든든한 **No.1 HRD 파트너**로서
함께 할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지친 모든 분들에게
그 어느때보다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